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재혼노인 및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married Elderly's Stress and
Adaptation to Stepfamily Life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林 春 暉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朴 景 蘭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Researcher : Choon Hee, Leem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ung Rhan, Park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ess of remarried elderly in their remarried life. There were 10 remarried elderly respondents. The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personal interview.

Focusing on the situation of remarried family life, the remarried elderly perceived various stress. Those were the stress from the status of remarried person and the stress from relations with their own children / new spouse / new spouse's children / ex-spouse and ex-kin / sibling and relatives and frie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a useful material for elderly's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

I. 서론

한국사회에서 60년대 초부터 진행된 산업사회화 과정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 고출생-고사망의 유형에서 저출생-저사망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전환과정의 배경의 하나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공세권 외, 1987) 과거 자녀결혼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던 양상에서 자녀결혼후 부부가 함께 15년간 자녀없이 보내는 빈둥우리의 시기를 경험하는 양상으로 노년기가 연장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 그리고 부부중심의 가족가치관의 강화, 노부모 부양양식의 약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가족적·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속에서 노인들은 노년기에 예상되는 대표적인 상실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상실의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배우자를 상실하고 홀로된 노인들은 급변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립감과 소외감,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가 길어진 상황속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노인은 외로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년기의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성교제나 재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재혼은 홀로된 독신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이가옥 외, 1994) 남자노인의 87.2% 여자노인의 36.3%가 유배우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 및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최근들어 노인인구 가운데 특히 무배우 독신노인의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재혼은 홀로된 노인에게 있어 삶의 대처방안으로 혹은 성공적인 노후적응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권장된다. 노년기의 재혼은 분명 홀로된 노인에게 생의 의욕과 활력을 회복시켜 주는 긍정적인 생활사건이며 아울

러 최근 문제가 되는 노인부양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는 바람직한 노인의 자기부양(自己扶養)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장려할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재혼한 노인의 30% 정도가 재혼 1년내에 다시 헤어졌다는 보고(조기동, 1993)에서 보듯이 재혼생활은 초혼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은 자칫 재혼당사자 각각의 이기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그러한 경우 재이혼으로 귀결되기 쉬운 것도 현실이다. 또한 아직까지 노인의 재혼에 대한 주변가족이나 사회의 지지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혼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노년기의 재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노년기 재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재혼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조장하기 보다는 독신노인이 재혼후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홀로된 노인이나 그 가족들이 노인의 재혼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노년기 재혼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노년기 재혼가족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스트레스 또는 문제에 대해 홀로된 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노년기 재혼의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노인이 재혼생활에서 실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노인과 현재 재혼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년기 재혼의 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 재혼

흔히 노년기의 재혼은 노혼(老婚)이라고도 하며 황

혼기의 결혼(december marriage)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황혼기의 결혼은 특히 독신노인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서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용어이다(유영주 외, 1997). 우리의 경우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고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유배우율이 85.7%인데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30.4%에 불과하며(김태현, 1996), 미국사회에서도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3/4 정도가 유배우인 반면 여자노인의 2/5 정도가 유배우로(Aiken, 1995), 노인인구 구성 비로 볼 때 홀로된 여성노인이 대다수이므로 사실상 이들이 노년기 재혼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노인이나 남성노인을 막론하고 노년기의 재혼은 홀로된 노인들에 있어 고독한 세계에서의 탈출을 뜻하는 것이며 잊어버렸던 인간관계의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귀중한 의미를 갖는다(박재간, 1979). 그러나 노년기 재혼이 홀로된 노인들에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에는 장애가 있으며 그러한 장애는 바로 ① 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낡은 성도덕관과 자기억제 ② 자식들의 반대 ③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입과 주택의 부족 ④ 노인의 결혼에 대한 상담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적다는 점이다(이윤숙, 1983). 이러한 이유 외에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재혼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거나 재혼으로 인해 재산 분배나 가족행사에서 자식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두려워 재혼결심을 주저하는 면도 있다(박재간, 1995). 이와 유사하게 McKain은 재혼의 장애요인으로 자녀의 반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노인의 성적 관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김은진, 1995 재인용). 또 한편으로 노년기 사랑에 대해 규범적으로 금지하는 경향과 구애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 소득, 이동성에서의 쇠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기간의 관계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의 성향으로 인해 노년기 결혼율이 낮다고 한다(Enlight, 1994). 이로 볼 때 국내·외적으로 노인의 재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가족과 사회의 인식과 노인들 자신의 여건부족, 재혼에 대한 억제심리와 두려움 등이 재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겠다. 일반노인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경우 여자노인의 26.6% 그리고 남자노인의 38.8%가 재혼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이가옥 외, 1994), 홀로된 노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로움에 정도가 클수록, 전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재혼희망도가 높았다(김은진, 1995).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재혼하려 하는가? 일반 노인이나 홀로된 노인 혹은 재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주된 이유는 외로움과 동반자의 필요 때문이었다(이윤숙, 1983; 김은진, 1995; 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 국외연구에서도 재혼을 결정한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혼이유가 동반자관계(companionship)의 필요성 때문이었다(Enlight, 1994). 그러나 이러한 동기 외에도 여성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자노인의 경우 몹시중을 들어줄 집사람이나 간호원 노릇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이윤숙, 1983; Enlightenment, 1994). 그런데 홀로된 노인의 재혼의 동기는 홀로된 노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재혼한 남자노인들의 경우, 단독생활의 불편함이나 자녀부부와의 갑작스런 불편한 동거 그리고 고독감 등으로 재혼을 서두르게 되는 다소 급박한 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재혼한 여성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재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하진 않으나 노후의 경제적 의존, 아들 부부와의 생활불편,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등으로 인해 재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란·임춘희, 1996).

노년기 재혼의 형태를 법적인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그렇지 못한 동거라 할 수 있는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년기 재혼인 경우 현실적으로 혼인신고와 같은 문제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또는 자녀의 반대와 같은 문제 때문에 명목상 재혼이라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사실혼의 경우와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의 차이를 볼 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acklin은 노년기 결혼에서 혼인전에 동거했던 부부와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를 비교한 결과 결혼

행복도, 갈등, 정서적 친밀감에서의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Aiken, 1995 재인용).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재혼노인에 대한 국내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재혼의 이유, 성립과정, 재혼 가족의 관계, 재혼의 문제점(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과 재혼과정과 생활변화(박경란·임춘희, 1996)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중요한 결과를 살펴볼 때 사별 또는 이혼한 재혼노인의 주된 재혼동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재혼성립과정은 중매혼이 주를 이루며 남자노인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을 제공하고 여자노인이 가사일을 전담하는 식의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재혼노인부부의 여가생활은 크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젊어서부터의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분리가 노년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혼노인들과 자녀들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재혼이 자녀들의 이해와 권유로 이루어지고 자녀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있기 때문에 재혼노인과 자녀들과의 심각한 갈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혼하여 단독가구 생활을 하는 노부부들은 자신의 자녀들과는 지속적인 심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배우자의 자녀들과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재혼한 남자노인의 경우 재혼 후의 생활을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2. 노년기 재혼생활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개념은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해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징적인 반응으로 Selye가 정의한 이후 연구자의 관점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그 가운데 Lazarus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과 반응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러한 인지평가적 접근에 따르면 어떤 스트레스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그것을 스트레스로서

인지할 때 비로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윤현희, 1994).

노년기는 그 발달단계상 겪게 되는 생활사건들과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스트레스원으로는 퇴직, 건강악화, 배우자사별, 경제적 수입의 상실, 역할과 지위의 상실, 죽음, 소외감, 고독감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실감의 문제이며 노년기의 상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은퇴와 배우자의 사별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일반 노인들을 중심으로 생활전반에 걸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최정혜, 1990; 윤현희 1994)나, 성역할 지향(장혜련, 1992)이나 은퇴(지연경, 1991)와 같은 특정요인에 따른 스트레스를 다루었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윤현희, 1994) 노인은 상실감, 건강문제, 가족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데, 최근 '노인의 전화'의 상담 사례 분석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한 문의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노인 부양을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 때문이었다(중앙일보, 1997. 10. 7). 그런데 재혼노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스트레스나 문제점 보다는 재혼노인들이 이미 적응이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홀로된 노인에게 있어 재혼은 부정적인 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인생사건으로 재혼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면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겪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친구의 죽음, 이사, 은퇴, 이혼 등과 같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생활사건들(life events) 보다도 가족관계, 건강, 경제문제와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인들(daily hassles)에 의한 불만족이 노인들에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더 쉽게 유발시킨다고 한다(윤가현, 1991). 이로 볼 때 노년기 재혼이라는 인생사건은 그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미 재혼생활에 돌입한 재혼노인의 경우 일상적인 재혼가족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

인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를 '노인이 자신의 재혼 가족생활의 상황에서 발생한 현실적인 또는 인지적인 요구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긴장상태'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재혼노인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노년기 재혼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 그에 따르면 재혼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재혼노인 자녀들의 관심과 경제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 하며 보통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시 여자 노인이 혼자 남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남자노인은 배우자에게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여자노인은 혼자서 살게 될 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점과 다시 홀로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재혼노인의 적응에 치중한 결과 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한 경향이 있으며 몇가지의 문제점 제시로는 노년기 재혼의 장·단점을 포함한 실상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혼노인을 '부부 중 한 배우자가 만 55세를 넘어 재혼한 남녀노인'으로 규정하고 최소한 재혼후 1년이 경과한 남자노인 7명과 여자노인 3명 총 10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1996년 8월 1일부터 1997년 1월 15일까지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재혼노인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위해 재혼노인을 심층면접하였다.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은 연구자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거나 면접한 노인이 친구인 재혼노인을 다시 소개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한 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가족관계적인 배경과 재혼가족생활의 성립과정, 재혼가족

생활로 인한 개인적·가족관계적인 변화, 재혼가족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노력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재혼노인의 가정이나 야외, 커피숍 등과 같은 장소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면접은 1회로 종결 되었으며 1회 면접에 평균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내용과 연구자들이 기록한 질문지의 내용 가운데 재혼노인이 재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인 재혼노인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의 방법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으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조사대상자인 재혼노인들의 재혼가족생활과 관련된 상황은 <표 2>로 살펴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혼인 여자노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별노인으로 아직까지도 노년기 재혼에서는 사별로 인한 재혼이 지배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사별한 남자노인과 사별한 여자노인의 결합이 주를 이룬다. 재혼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볼 때 미혼의 자녀와 동거하는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혼노인 부부만의 독립된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있었다.

재혼노인의 혼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볼 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 5명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라 할 수 있는 사실혼으로서의 재혼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사례	성별	나이	교육수준	생활수준	종교	주관적건강상태	과거직업	생활비마련
1	남자	69세	고졸	中上	천주교	양호	공무원	연금
2	남자	71세	고졸	中上	기독교	양호	교회단체근무	이자
3	남자	74세	중졸	上	없음	양호	지주	이자
4	남자	70세	국졸	中	없음	양호	농사, 자영업	아들
5	남자	75세	고졸	中	없음	양호(고혈압)	공무원	이자
6	여자	60세	중졸	中	없음	양호	회사원	이자
7	여자	64세	국졸	下	천주교	좋지못함	현재-페인트공	배우자
8	남자	75세	고졸	中	천주교	양호	현재-기계공	근로
9	남자	64세	국졸	中	불교	양호	현재-목재상	목재상
10	여자	56세	국졸	中	불교	좋지못함	식당업	배우자

* 사례 5, 6과 7, 8은 부부지간임.

〈표 2〉 조사대상자의 재혼관련 상황

사 례	재혼 지속 년수	재혼前 상황	재혼前 혼자생활 기간	재혼시 본인연령	연령차 현배우자	자신의 친자녀	친자녀와의 동거여부	재혼후 자녀	배우자의 자녀	재혼의 성격	현배우자의 재혼여부
1.남(69세)	6년	사별	11개월	63세	5세(64)	3남	별거	없음	없음	법률혼	이혼후재혼
2.남(71세)	13년	사별	3년	58세	11세(60)	2남	별거	없음	2남	법률혼	사별후재혼
3.남(75세)	2년3개월	사별	6개월	72세	22세(53)	8남매 (3남5녀)	별거	없음	1녀	사실혼	사별후재혼
4.남(65세)	5년	사별	1년	60세	5세(60)	3남	별거	없음	2남	사실혼	사별후재혼
5.남(75세)	15년	사별	1년	60세	13세(62)	2남4녀	별거	없음	없음	법률혼	사별후재혼
6.여(62세)	15년	초혼	-	47세	13세(75)	없음	별거	없음	2남4녀	법률혼	사별후재혼
7.여(64세)	4년	사별	15년	60세	11세(75)	3남	별거	없음	2남	사실혼	사별후재혼
8.남(75세)	4년	사별	1년	71세	11세(64)	2남	별거	없음	3남	사실혼	사별후재혼
9.남(64세)	9년	사별	3년	55세	19세(45)	1남5녀	동거	없음	1남5녀	사실혼	이혼후재혼
10.여(56세)	12년	사별	7년	44세	12세(68)	1녀	동거	없음	3녀	법률혼	사별후재혼

* 3년 사례는 첫부인 사별후 재혼한 여자노인과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다시 재혼한 경우임.

2.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

재혼노인이나 그 배우자가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면접기록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정의 문제들과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재혼노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재혼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의 소재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재혼노인이나 그 배우자의 스트레스는 (i) 재혼자라는 입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ii) 재혼노인 부부관계상의 스트레스 (iii) 친자녀관계상의 스트레스 (iv) 배우자의 자녀관계상의 스트레스 (v) 전처, 친척, 형제관계상의 스트레스 (vi) 친구, 대인관계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재혼자라는 입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재혼노인이 재혼자로서의 입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살펴볼 때 ‘자녀와 새배우자 사이의 입장곤란’, ‘재혼에 대한 후회’, ‘스트레스 토로 대상의 부족’, ‘건장에 대한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먼저 재혼한 남자노인들은 재혼으로 인해 새배우자와 자신의 친자녀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점을 스트레스로 토로하였다.

<자녀와 새배우자 사이의 입장곤란>

“자식들 보기가 신경쓰이지. 뭐가하면 전에 지엄마 하고 있을 땐 이런거 안했는데 지금 새엄마한테는 이런거 해준다. 왜 아버지 마음이 달라졌나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 그리고 애들 보는데 드러내놓고 이 마누라 위하는거 같은거 좀 삼가야 하고 전에는 그런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 그랬지만 이 재혼을 하고 나니까 내 입장이라카는게 참 어렵워. (사례 3)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아이들을 보면 서로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이 마누라는 애들한테 뭐라 소리는 못하고 나한테 소소하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거지. 그러자니 애들하고 이 마누라 사이에서 내가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한거라.” (사례 9)

노년기의 재혼도 또 하나의 새로운 결혼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뿌리깊은 관습으로 재혼이라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부계중심적이며 여성이 남성의 가정에 편입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심인물인 재혼한 남성노인은 재혼한 자신의 입장으로 자녀와 새배우자 가운데서 처신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정작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새부인과 친자녀와의 삼각관계속에서 관계조절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에서 남모름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재혼가족원으로서의 고충은 남자노인과 재혼한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이 차이지는 남편과 지금은 출가했어도 전실 딸들 속에서 항상 긴장상태로 지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사례 10:여)

이로 볼 때 노년기 재혼이라 하더라도 재혼가족원으로서 재혼부부와 친부모자녀관계, 계부모자녀관계 사이에서 애정과 감정적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후회>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재혼한 자신의 처지를 몹시 후회하였는데 자신의 재혼결정에 대한 후회는 곧 재혼당시의 기대와 욕구가 현실적으로 어긋났다는 인식으로 재혼생활의 불만요소 즉, 스트레스로 간주할 수 있다.

“나이차이가 많았지만 그 쪽 어린애가 없으니까 내애는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었고 나이차이가 있으니까 사랑받고 괜찮을 것 같았지. 그건 오산이었어. 오히려 모든 걸 참고 떠받쳐 주어야만 하니까. 재혼한 건 잘 못한거지. 후회스럽고...” (사례 10:여)

“재혼한 걸 항상 후회하지 정은 들어어도 지금이라도 헤어지는데 좋지 않겠나 싶은거지.” (사례 7:여)

재혼노인들이 재혼한 입장임으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로 받는 문제 중의 하나는 남녀노인을 막론하고

재혼생활로 인한 갈등이나 불만을 토로할 대상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토로 대상의 부족〉

“재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재혼하기 전하고는 다르지. 동기간이나 친구들 아들 며느리 누구한테도 말 못하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친구들 있는데서 조금씩 내비치기는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떠들어대고 그렇진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어디에다가 얘기할 데가 없지. 그러니 나처럼 재혼했어도 문제가 있으면 더 외로운 거라고.” (사례 1)

노년기의 재혼은 상실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여생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작 재혼생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재혼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재혼자로서의 체면, 수치심 등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할 대상을 갖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재혼노인으로서 재혼전 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혼노인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재혼노인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고독감의 심화와 은폐를 가져오는 재혼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재혼한 남자노인들은 특히 자신이 노인이면서도 재혼자라는 입장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건강한 것이 재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무엇보다 내자신의 건강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이 사람하고 사는 날까지는 건강해야 하니까. 돈이야 없으면 자식한테 얻어쓴다고 해도 이 사람하고 사는 동안은 내 건강이 안좋으면 안되지요.” (사례 8)

“내가 이 사람하고 나이차이가 쪼까 있으니까 건강에 제일 신경을 쓰지. 돈이 있어도 영감탱이가 꼴꼴하면 여자가 제일 싫어하니까.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몸관리에 신경을 쓰지.”

(사례 3)

재혼노인에 있어 건강은 재혼생활을 유지해 나가

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초혼에 비해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의 기초가 다소 취약하므로 건강악화와 같은 문제는 자칫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일반적으로 부양상황에서 배우자의 수발에 의존해야 하는 남자노인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부관계상의 스트레스

재혼노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은 재혼노인들의 부부간의 적응이 순조로운 점만을 강조한 경향이 있으며 재혼노인들이 겪는 부부간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재혼을 희망하는 홀로된 노인들의 경우 재혼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새로운 부부관계에 대한 적응(49.4%)을 꼽았다(김은진, 1995).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재혼노인들은 ‘재혼배우자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재산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부부로서의 유대감의 문제’, 그리고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인 문제’, ‘사후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재혼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재혼노인이 새배우자를 맞이한 입장에서 재혼배우자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후회를 비롯하여 새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일, 배우자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입장, 배우자 수발에 따른 피곤함, 부부간의 성격차이 등이 있었다.

“재혼자체는 잘했는데. 솔직히 이 배우자를 맞은 게 후회되지. 선택을 잘못한 거지.” (사례 1)

무엇보다 재혼노인들은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뭐 성격차이지, 여자가 자기남편하고 오래 살아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그래봤어야 하는데 이건 순전히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남편을 생각하고 좀 받들고 하는 그런 뭐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자기위주로만

뭐든지 자기생각만 하나까 그 선택이 잘못된거지.”

(사례 1)

“신경쓰는 거 그사람의 성격이지. 신경과민 쪽으로 조금 가는 데가 있고. 성격이 안맞아서 처음 여자랑 2년만에 헤어졌지. 성격이 첫째 맞아야 한다고 남자 성격을 죽이고 저쪽 성격하고 맞추든지. 이쪽에 성격을 맞추든지. 근데 뼈가 굳어져 가지고 나이가 육십이 넘고 칠십이 되면 자기 평생 살아온 뼈가 있잖아. 굳게 융합이 어렵지. 젊을 때 부부가 된 것은 긴세월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했으니까 이런거 저런거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늙어가 만나면 그렇게 아니니까 좀 ….”

(사례 3)

재혼한 여자노인의 경우 노년기의 자신의 건강도 약화되는데 배우자 노인의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점을 힘든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남자노인의 신체적 서비스 부양자로서 재혼한 여자노인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페인트칠 땡긴 지 십년이 넘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그러는데 영감님도 챙겨주고 해야하는 것이 힘들고 영감님이 술을 드시면 할말 안할말 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사례 7: 여)

〈부부로서의 유대감의 문제〉

노년기 재혼은 노인이 홀로 지내던 생활에서 부부 중심적인 생활로 재전환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속에서 정작 재혼노인부부간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측면에서 내면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로는 성생활에 대한 불만, 새배우자가 모르는 비밀의 유지, 부부 공유활동의 부족, 부부로서의 결속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제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따로 방을 쓰는 거 그거지. 결혼해서 한 1년은 한 방을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왜 그런지 따로 방을 쓰는데 지금도 각방을 써. 도대체가 옆에 가기만 해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 한 방을 쓰는걸 거부하니 지금은 체념하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면 늙어가지고 꼭 붙어 자냐 하면서 그러는

데 부부라는게 나이가 젊던지 늙던지 간에 서로 살이라도 맞대고 그래야 정(情)도 생기는거지 자기 몸에 손도 못대게 그러면 그게 어디 남이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실 재혼을 했어도 외롭지 ….” (사례 1)

“부부관계는 거의 잘 안해.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거야.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사는거지.” (사례 10: 여)

노후 재혼의 실질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재혼은 노년기에도 지속되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배우자측에 의해 충족되지 않을 때 재혼노인은 재혼에 대해 좌절감을 맛보며 부부로서의 심정적인 유대감마저 갖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재혼노인 중에는 새배우자에 다소 약점이 될 수 있는 자신 가족의 가족관계나 내력, 비밀에 대하여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아들 삼형제 중 막내가 있는데 고등학교때 정신이상이가 되서 지금 시골 요양원에 가 있는데 나하고 큰애가 매달 요양비를 보내고 있지. 이 여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내가 말을 안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그 자식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것도, 그런 얘기를 이 여자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더라고.” (사례 1)

대체로 남자노인들이 재혼에 만족하는 경향에 비해 조사대상 남자노인 중 가장 재혼을 후회하고 있던 사례 1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유대감의 부족과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새배우자에게 친자녀에 관련된 비밀(정신이 상으로 요양원 거주)을 감추고 있었다. 특히나 재혼한 남자노인들의 경우 초혼배우자인 사별한 전처와 비교하여 재혼배우자와는 부부로서의 결속감이 크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 거는 가령 애들문제로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걱정을 못하는

거 원(原) 내외간 같으면 개가 그러니 어떻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의는상대는 못돼요. 어디까지나 이야기해봐야 자기는 객관적으로 듣게 되니까... 아주 끊을 수 없는 정은 아무래도 그때 만큼은 못하지.” (사례 3)

“본처 때는 말을 마음대로 하고 호통도 치고 그랬지만 재혼한 마당에서는 마음대로 말을 하기도 힘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많지.” (사례 9)

재혼한 남자노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현재 배우자에 비해 사망한 전처와의 부부간의 정이 더 깊을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전처가 생존시에 남편으로서 더 높은 위세를 부릴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재혼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주도권이 약해진 것에 대한 자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재혼한 여성의 입장에서든 새배우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부부로서 결속감이 확고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땀집보고 땀 남편들 하는거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아내라고 대우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그전시대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자한테 자상하게 해주고 뭐 그런건 없고 오직 내가 남편이다 그런 것만 세워가지고 나는 어차피 애하나 데리고 재취로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밥만 먹여주는 것만해도 만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애. 이렇게 살아도 남편이라하기보다 그저 마 음식해주고 나가고 나면 집안 치우고 나는 그저 살림해 주는 사람이고... 그냥 사는거지. 왜 진짜 부부같은 그런 마음은 없다고 봐야지.”

(사례 10)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가진 남자노인이 재혼을 하기 쉬우며 재혼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와 재혼후 경제적인 주도권을 맡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력을 가진 남자노인이 재혼한 경우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므로 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

“처음에 인자 재산문제보다가 갈등이 있었지. 자기

앞으로 좀 돌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랬지. 재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안 산다고 그래서 재산가지고는 더 이상 말 안하지... 그래도 지금도 재혼해서 불편한거라 한다면 재혼하면은 남편편에서 돈이 있고 돈을 자꾸 써줘야만 좋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여, 그러기 때미 첫째, 금전관계로다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언쟁이 생기지.” (사례 4)

이처럼 재혼생활에서 부부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부부간의 경제력의 불균형이 심한 노년기 재혼의 경우 더 노골화 될 수 있다.

“여자가 혼인신고도 돈도 요구하지 않고 필요없다 이케도 남자로서는 부담이 되지. 암만 요구를 안한다 해도 남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한다해도 상식적으로 영감이 먼저 죽는다고 볼 때 영감이 죽고나서 영감자식한테 용돈타서 생활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지. 그러니 여자가 자기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말이야.” (사례 3)

위와 같이 남자노인의 입장에서 새배우자의 요구표명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물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의 결과(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서 경제적인 주도권 없이 생활비를 타써야 하는 대부분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생활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들지. 내게 아무런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냥 생활비 주면은 거기에 맞차가지고 사는 데 항상 빠듯하니 힘들지. 요즘은 물가도 올랐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다고 돈가지고 얘기하기도 뭣하고. 내가 참고 어떻게든 꾸려가는 거지.” (사례 10)

이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남녀노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 그런데 선행연구(조기동, 1993)에서 재혼이 성사된 노인의 30%가 재혼 1년내에 헤어졌으며 헤어진 이유 가운데 ‘너무 경제적으로 웅색하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년기 재혼에서 부부간에 경제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

재혼한 노인들이 부부관계상의 법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 사실 노년기 재혼에서 혼인신고문제는 노혼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서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차후에 생기는 재산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방지와 자녀들의 반대가 주된 이유였다.

“혼인신고라 하는 것은 내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재산상의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 엄마와 애들과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또 여자쪽에서 어떠한 이쪽 집안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것을 처음에 재혼할 때 아주 그거(혼인신고)만은 모한다고 못박아버렸어.” (사례 3)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저쪽 할머니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라. 호적을 빼가면 어머니를 뺏기는 것 같아서 반대한다그래. 나는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긴 우리 애들도 원하지 않는 눈치고 그러니까 그냥 안하고 사는 거지.” (사례 8)

미국에서도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를 일컬어 편의상의 미혼자(unmarriages of convenience)라고 하는데(Aiken, 1995), 그 이유 가운데는 법적인 재혼신고로 인한 前배우자의 연금 수혜 감소에 대한 불안과 유산상속을 둘러싼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신성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사생활을 즐기기를 위한 것 등이 있었다. 면접한 노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례 3의 경우 재혼할 당시 상대방에게 미리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서 재혼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수락했어도 부부로서 배우자로서의 자리, 정체감을 확신하고 싶어하는 배우자의 요구에 부담을 갖게 된다.

“어려움 그런거는 혼인신고는 그쪽에서 이미 생각하고 왔시니까 해달라 소리는 안하는데 인자 여자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폐경기도 지나고 신경이 조금 과민해지고 그리고 사람이니깐 생각은 다 있다고. 어떤 때는 투덜대지. 내가 뭐 혼인신고도 안하고 내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그러지.”

(사례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담감은 사실 여성의 경우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식도 안치르고 사는 것이 더군다나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사는 것이 뻗뻗치가 않지. 남부끄럽고 양심의 가책도 되고 쟁피스러워서 … 그러니까 영감 넘히고 싸울 때도 큰소리가 날까봐 그냥 참고 살지.”

(사례 7: 여)

아직까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년의 재혼 특히 여성노인의 재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며 더욱이 혼인신고 안올리고 혼인신고도 안된 ‘동거’에 대한 주위의 시선 또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노년기에 재혼하였으며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동거상태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많은 독신노인들이 재혼을 내심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혼인신고와 같은 법률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재혼을 주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혼인에 따른 불화나 심리적 부담을 피하면서 노인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사실혼으로서의 재혼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후문제〉

재혼노인들에 있어서 새배우자의 사망은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자 될 가능성이 많은 여성노인의 경우 다시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 그러나 배우자가 혼자 남을 것에 대한 걱정은 재혼한 남자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난 지금도 이사람한테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노처녀로 와서 이제껏 나하고 살았으니 문제는 내가 간 뒤에 이사람이 고독감을 느낄 것 아닌가. 과거 같으면 시부모가 계모라도 자식들이 봉양을 했다가.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다르잖아. 그래서 애를 하나 데

려다 기르면 어떻게겠나 하는데 그것도 ...” (사례 5)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재혼노인들의 사후에 대한 걱정은 장례방식과도 연관되어 있었는데 매장(埋葬)을 선호하는 남자노인과 화장(火葬)을 주장하는 여자노인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나야 시골에 선산이 있으니까 시골에 묻힌 안사람하고 합장할라고 그러지. 자식들도 있으니까 화장하는 건 좀 거시기하고... 지금 이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든 어쨌든 자기는 누구든 화장할 거라고 신경쓰지 말라 하는데 아무래도 보면 남자가 흔히 먼저 죽으니까 나야 시골에 묻어줬으면 하지...”

남자들이야 기왕이면 둘다(전처, 후처) 양옆에 놓고 싶지만... (사례 5)

“사실 사별한 전남편 제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이부종사하는 처지니까 만약에 지금 누가 먼저 죽던지간에 깨끗하게 화장하려고 해. 그래야 애들보기도 그렇고 번거롭지 않으니까” (사례 7: 여)

면접한 재혼노인들은 장례를 비롯한 사후(死後)의 문제에 대하여 배우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보다는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면서 각자에게 편한 방식을 소망하고 있었다. 재혼 노인부부들이 특히 죽음과 사후의 여러 문제(장례, 재산상속, 부양,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해 분명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의 일치를 보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은 후에 배우자 한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생존한 재혼노인과 그 자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간에 장례방식을 비롯하여 사후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노인에게는 재혼이 여성에 대한 일시적인 대처방안에 불과하다는 것(한혜신, 1996)은 사후까지 부부로서의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으로서 화장을 고집하는 여자노인의 모습에서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3) 친자녀관계상의 스트레스

재혼결정을 노인 스스로 했거나 자녀들의 권유로 했거나간에 재혼 후 노인들은 친자녀관계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과 자녀의 눈치보기’, ‘자녀들간의 불화’, ‘자녀와의 관계 소원과 왕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자녀들 태도에 대한 불만〉

“딸들이 이 사람한테 어머니 소리는 안하지. 자기 생모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가 단지 혼자인데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줄려면 즉 마음을 맞차려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여자한테 엄마소리라도 하고 그런 태도로 나와야 할 것 아닌가 이거지. 그렇다고 내가 강요할 수도 없고... 아버지 장래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보살펴 주고 수발해주고 음식을 잘해주고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고 한다면은 엄마소리라도 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잘 안되는 가봐.” (사례 3)

재혼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 태도에 대해 갖는 불만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자녀들이 자신의 새배우자를 대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드러내놓고 자녀들에게 내색할 수도 어떤 요구도 당당히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재혼노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들의 눈치 보기〉

“그전에야 뭐 내가 자식들한테 마음대로 했지만 시방은 재혼하고 나서는 자식들한테 눈치보이고 큰소리를 못하지.” (사례 4)

재혼한 노인들이 친자녀의 눈치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 재혼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권한과 발언권이 약화된다고 인식하며 자녀보기에 미안함과 떳떳치 못하다는 감정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혼한 여자노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자식들 보기가 아무래도 부끄러운 게 있지. 자기 아버지 일찍 죽고 나서 만 영감하고 만나러 왔다갔다 하다가 이렇게 산다고 하니 뭐가 좋겠어.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하지. 애들이 착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진 안해. 나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식들 눈치를 많이 봐요.” (사례 7: 여)

위의 사례로 볼 때 여성노인으로서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혼을 선택하였으나,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매도하던 유교적 관념의 잔재와 자녀들의 드러내지 않는 저항감으로 인해 재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친자녀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친자녀들간의 불화〉

재혼노인이 친자녀관계에서 갖는 어려움 가운데는 자신의 재혼으로 인해 친자녀들간의 사이가 멀어지며 불화를 겪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갖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는 재혼노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디 뭐냐면 자연히 동구간에 우애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재혼하고 세월이 흐르다봉께 자식들간의 우애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자꾸 가깝게 하고 정붙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트러블이 생겨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지난 번 명절 때도 따로 따로 왔다갔는디 아들형제간에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시방 그거 한가지가 마음에 걸리지.” (사례 4)

재혼노인의 친자녀들이 새부모를 맞이하는 태도는 자녀들마다 자신이 처한 입장(아들/딸, 장남/차남이하), 부양담당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과 새부모에 대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녀마다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정 때문에 새부모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자녀와 현재의 새부모를 가까이 대하려는 자녀 사이의 불화를 보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재혼한 노부모로서는 불편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된다. 이는 노년기의 재혼이라 하더라도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부재중인 친부모와 새부모 사이에서 애정갈등을 겪으며 그로 인해 자녀들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아울러 그것은 당사자인 재혼한 친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와의 관계소원〉

재혼노인의 경우 재혼후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친자녀와의 접촉은 명절이나 생신 때와 같은 특별한 때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것으로 빈번하지 않으며 경제적이거나 서비시적인 원조관계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란·임춘희, 1996). 그러나 재혼노인들은 재혼으로 인해 자녀와의 왕래·접촉·원조관계가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노인은 재혼후 친자녀와 형식적·공식적인 접촉은 유지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는 그러한 접촉마저 회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재혼하고 나서는 따로들 사니까 일년에 무슨 때나 되면 만날까 보통 때는 사실 거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전처럼 부모자식시간 같은 그런 정(情)이 적어진 것 같애.” (사례 5)

“재혼했어도 내아들하고 사이는 크게 변한 것 없는데 그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고 나도 이 양반하고 사니까 그렇고 애들 저그들도 여기 오기를 내켜하지 않고 가끔 전화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남같이 지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 혼자 좋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많지.”

(사례 7: 여)

재혼노인들이 이처럼 친자녀관계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재혼한 노부모가 있는 성인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에 대해 보다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지지해 주는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야 하는 역할전환의 단계에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싼 손익관계를 따지기 보다 재혼한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은 홀로 되었다가 재혼한 부모를 위한 합리적인 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4)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재혼을 희망하는 홀로된 노인들은 재혼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적응’ 다음으로 ‘외부부모-자녀관계’를 꼽았다(김은진, 1995). 그러나 재

혼노인에 대한 연구들은(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 노년기 재혼이 자녀들의 이해와 권유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되어 살고 있으므로 의붓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부모(의붓부모)가 되는 재혼노인들의 경우 배우자 자녀와 심각한 갈등은 노출되지 않는다해도 새부모로서 호칭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으려는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의 태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모로서의 대우 부족〉

“그런데 저쪽 편의 여자자식들은 뭐냐면 ‘아버님’ 소리를 안해.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만 하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마음적으로 거시기하지. 그러니까 지엄마 재혼한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사례 4)

이러한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은 남자노인이나 여자노인이나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저쪽 아들하고 며느리는 그래도 좀 나는데 딸들은 이제껏 살았어도 어머니 소리를 안하니 까 그리고 며느리가 둘인데 아무래도 친시어머니가 아니니까 내가 시어머니라도 대하는게 좀 그래. 나도 바라지는 않지만 섭섭할 때가 많지.” (사례 6: 여)

“아무래도 안좋지. 무슨 때가 돼서 와도 딸들이 어머니 소리도 안해. 그 사위들도 장모님이라고 하는 법도 없고 와도 저그는 지아버지하고 앉아서 놀고 나는 파출부처럼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먹을거나 챙겨주고 그렇게 한 번씩 왔다가면 내 혼자서 다 치워야하고 그러면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아도 나를 한 가족이랑기 보다 그저 살림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 (사례 10: 여)

그런데 여성노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의미와 비중이 큰 ‘시어머니’ 또는 ‘장모’로서의 역할과 대우가 재혼가정의 상황속에서 취약해진다는 점에서 남자노인에 비해 배우자 자녀(의붓자녀)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의 관계에서 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재혼한 노인의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 남녀 노인별 차이는 주로 노년기 재혼에서도 지속되는 부계중심적인 가족문화, 부양자로서의 역할, 재혼에 따른 역할상실(약화)과 취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노인의 경우 노년기 재혼에 따른 기존의 제역할의 약화는 더 심한 반면, 재혼으로 인해 취득하게 된 새로운 역할의 수는 정서적·신체적 서비스 부양자로서의 배우자, 새부모, 새시부모, 새장모, 새친척원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재혼에 따른 역할긴장 스트레스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5) 전처 및 전처 가족들과의 관계 스트레스

면접한 재혼노인들 가운데 특히 남자노인들은 사별한 전처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나타냈으며 생전에 전처에게 잘 해주지 못한 데 대하여 후회하는 빛이 많았다. 이러한 후회의 감정은 재혼의 상황속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혼생활이 만족하면 만족한대로 불만스러우면 불만스러운대로 전처와의 관계를 재혼생활의 비교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간주하기는 미약할 수 있으나 재혼한 남자노인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로 간주하였다.

〈전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죽은 마누라 제사 때나 가끔씩 그리운 생각이 때가 있지. 죽은 마누라에 대해 내가 지금 생각 같았으면 더 잘해줄 수가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 좀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내가 지금 이 자세로 지금 마누라와 살아가는 자세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봤더라면 그사람도 안 좋았겠나 하는게 후회되지.” (사례 3)

“지금 생각하면 죽은 마누라를 4년 7개월동안 병뿔 바라지를 했는데 그때 시중드느라 몸은 힘들었어도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 지금 마누라하고는 다르지. 죽은 마누라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 뜻을 받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혼하고 살아보니까 죽은 마누라 생각이 더 나는거라.” (사례 1)

흔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이 재혼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별자의 경우 죽

은 배우자를 미화하고 이상화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Bernard, Enright 1994 재인용), 본 연구의 남자노인들은 현재 배우자보다 더 자신에게 순종적이었던 전처에 대해 더욱 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전처가족과의 관계 단절〉

재혼한 남자노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재혼으로 인해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처의 친정식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죽은 마누라의 처제, 처남들하고 사이가 멀어진 것이 제일 안타깝지. 이복에서 같이 나와서 우리가 다 키우다시피해서 친동생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는데 마누라 죽고 내가 새로 결혼하니 까 거기에 금이 생긴거지. 지금 이사람하고 다같이 서로 융합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앞장서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지.” (사례 2)

흔히 재혼가족의 친족을 분류하는 문제는 다소 복잡하여 재혼노인의 전배우자의 친척의 경우 의사친족(擬似親族, quasi-kin) (Ganang & Coleman, 1994)이라 할 수 있는데 노년의 재혼이라 하더라도 재혼에 대해 그다지 수용적이지 못한 의사친족들의 태도로 인해 재혼노인으로서 원치않는 관계의 단절을 맛보게 된다.

6) 형제·친척관계 스트레스

우리나라 노인의 형제들과의 대면접촉 빈도는 잦은 편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상호교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며 노인들은 직접적 대면접촉보다는 간접적인 전화접촉으로 상호교류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태현, 1996). 그러나 재혼노인의 경우 자신의 재혼으로 인해 형제관계가 약화되고 소원해진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형제관계의 약화〉

“공께 내가 6남매에 장남인데 내 동구간끼리도 멀어지고 재혼함께 그것이 내가 시방 그거 한가지가 마

음에 걸리지.”

(사례 4)

또한 재혼노인들은 노년기 재혼이라는 상황 때문에 친척관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이 때문에 친척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친척관계상의 소원함〉

재혼노인 가운데 특히 자신이 종가(宗家)집으로 친척관계가 넓은 경우에 재혼노인의 새배우자에 대한 다소 비하적인 친척들의 시선에 처신하기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

“이 사람한테 좀 미안한 게 있다면 이것도 좀 안 좋은 관습인데 친척들이 후처라고 하면 까닭없이 내려다 본다구. 그러니 이쪽에서도 대하기가 좀 멀리하게 되구...” (사례 5)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의 새배우자인 여성노인의 입장에서는 종가집의 새로운 중부(宗婦)로서 복잡한 친척관계를 관리, 조정해야 하는 일까지 맡게 된다.

“이집이 종가집이다 보니까 집안이 많아 그러다보니 자연이 말들이 많았지. 후처라고 까닭없이 앞잡아보구 동서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종가집 맡며 느리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뭐든 나서서 해야 하니까 그런게 힘들더라구. 후처자리라는게 여간해서 당차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거라구.” (사례 6: 여)

〈친척관계의 단절〉

재혼여성으로서 새엄마가 되는 여성들이 친정식구들과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임춘희, 1996)은 노년기의 재혼여성에게서도 볼 수 있다.

“친정식구나 친척들은 거의 안만나고 사는거지. 내 자신이 그러니까 좀 쟁피스럽고 식구들도 왜 하필이면 그런 자리냐고 그러고. 항상 내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기가 죽는거야. 그러니까 통 안만나.” (사례 10: 여)

7) 친구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노년기의 친구관계는 노후 의지의 대상이 되며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역할전환상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 변인이 될 수 있다(김태현, 1996). 그러나 재혼 노인처럼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그리고 재혼의 경험을 거치면서 이전 배우자와 함께 부부로서 맺어왔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면접한 남자노인들의 경우 무엇보다 재혼이후 친구들의 방문과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친구왕래의 감소〉

“전 마누라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수시로 우리집에 놀러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집에 누가 오고 그러는 걸 당체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친구들이 한 두 번 놀러 왔다가 이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 집으로 안오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발길이 끊기고 볼 일이나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바깥에 나가보고 아무래도 친구들과하고 만나는 것이 좀 적어지지.” (사례 1)

“나이를 먹은 탓도 있지만 재혼하고 나니까 서로 친구들끼리도 짐사람 눈치를 보니까 여간해서 그전처럼 자주 안만나고 그저 가끔씩 친구들이랑 밖에서 잠깐씩 만나고 그렇게 되대요.” (사례 2)

재혼한 남자노인에 비해 재혼한 여자노인은 친구 관계를 기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기피〉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아무래도 피하게 되지요. 할아 버지도 싫어하고 친구들이 자꾸 재혼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고. 나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나는게 싫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아는 사람하고는 되도록 피하려고 하지요.” (사례 7: 여)

이는 여성의 재혼이 남성의 재혼에 비해 화제거리(gossip)가 되기쉬운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며, 특히 노인여성이 재혼한 경우 사회적 시선이 더 집

중되므로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주위의 이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면접한 남자노인들은 대부분 재혼과 함께 그이전의 생활지역을 떠나 농촌에서 도시로 혹은 도시에서 인근도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주지 이동은 재혼노인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가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사로 인한 대인관계 감소〉

“내 고향땅 같으면 시골이니까 이웃에 마실도 다니고 친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이라해도 나한테는 타관객지니까 여간해서 친구사귀기가 힘들어. 게다가 이렇게 재혼까지 해노니까 이웃하고 왕래하는 일도 없고 이 사람하고나 터놓고 얘기하게 되지. 굳이 친구 사귄 필요도 없으니까.” (사례 4)

“원래는 서울 창동서 살았는데 재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게 창피하다고 그래서 산본으로 이사했지. 거기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좋다하지만 나는 창동에서 오래 살고 성당을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곳이 더 좋지 이사한게 좀 그렇지 하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지 뭐. 어쩔잖나.” (사례 1)

재혼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재혼과 함께 단독의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다. 그러나 재혼노인 부부의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데는 최소한 부부 중 한사람 혹은 부부 모두 이전의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함과 고충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될수록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김태현, 1996) 친숙한 사물 가운데는 친숙한 사회적 관계와 생활공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즉 이사해야 하는 상황은 그동안 유지해 온 친숙한 이웃·친구와 같은 사회적 대인관계와 주거지역에서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새롭고 낯설며 다소 고립된 주거상황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혼과 함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재혼노인 특히 남성노인의 경우 주거지 이동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관계에서 불편함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에 재혼한 노인들과 그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혼노인이나 그 배우자는 먼저 재혼자 및 새배우자의 입장으로 인해 친자녀와 새배우자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점과, 재혼에 대한 후회·재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토로할 대상의 부족·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재혼한 새배우자로 인한 문제·부부로서의 유대감 문제·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인 문제·사후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또한 재혼노인들은 친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배우자에게 소홀한 자녀들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며,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재혼으로 인해 친자녀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사별한 배우자 특히 전처나 전처가족들과의 관계의 면에서 볼 때 재혼으로 인해 전처에 대해 미안함과 그리움의 감정이 생기거나 원하지 않았던 전처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된 점에 대해 크게 아쉬워 하고 있었다. 재혼한 노인들은 재혼으로 인해 자신의 형제나 친척관계 또한 약화되거나 소원해지고 단절되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친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왕래가 감소하거나 재혼 후 이사를 하여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것과 같은 생활변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노년기의 재혼은 홀로된 노인에게 긍정적인 노후적응의 대안일 수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재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복잡다양하므로 노년기 재혼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재혼후유증에 대해서도 노인이나 노년학자, 사회일반인들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재혼노인들은 특히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년

기 재혼에서의 부부관계는 재혼노인에게 최우선의 보상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심리적 갈등이 많은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 3) 노년기의 재혼은 부부관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관계 즉 자녀·형제·친척같은 가족 및 친족관계와 친구·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부부중심의 고립된 핵가족의 생활을 하기 쉽다. 이는 재혼이 홀로된 노인의 자기부양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나 재혼배우자와의 재사별이나 재이혼과 같은 상황이 더 고령인 상태에서 발생시에 부양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심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 4) 재혼노인이 재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토로할 대상을 갖지 못하는 경우 불만스러운 재혼으로 인해 재혼노인은 내면적인 고독감과 사회적 관계상의 고립감을 혼자였을 때 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므로 재혼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5) 재혼이나 재혼배우자 선택에 대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재혼이나 재혼배우자에 대해 노인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두는 데서 벗어나 재혼은 제2의 인생이며 재혼배우자는 여생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배우자와의 진실된 화합에 초점을 두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6) 재혼노인들이 부부관계에서 겪는 경제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상존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혼 전과 재혼 후 부부간에 합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노년기 재혼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의 재혼과 관련하여 홀로된 노인들에게 재혼과 관련된 현실적인 장·단점과 득실(得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홀로된 중년 및 노년층의 재혼을 위한 준비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노인재혼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혼노인을 위한 전용의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년기 재혼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재혼노부모가 있는 가족들의 갈등해결이나 가족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적인 서비스가 재혼노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도 노년기 재혼의 걸림돌이 많은 우리의 재혼에서 노인들의 성공적인 재혼을 위하여 노인 주변의 가족, 친지, 일반사회인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이해, 적극적인 지지가 요망된다. 그리고 노년기 재혼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노년기 재혼의 현상과 결과에 대해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혼배우자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하지 않으면서 재혼만족도가 높은 재혼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별로 구분하여 재혼의 동기, 과정, 그리고 만족스런 재혼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혼노인들이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세권의(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2) 김은진(1995).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태현(1996). *노년학*. 서울: 교문사.
- 4) 박경란 · 임춘희(1996). 재혼노인의 재혼과정과 생활변화. *인제논총*12(2). 657-684.
- 5) 박재간(1979).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 6) 박재간의(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 7) 유영주의(1997). *가족발달학*. 서울: 교문사
- 8) 윤가현(1991). 노년기의 고독감: IV.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11(2). 179-189.
- 9) 윤현희(1994). 남녀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이가옥의(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이윤숙(1983). 노인과 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172-199.
- 12) 이정덕 · 최영아(1997).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5(2). 255-271.
- 13)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장혜련(1992). 남자노인의 성역할 지향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조기동(1993). 혼자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노년학* 13-2, 153-162.
- 16) 중앙일보 1997. 10. 7일자.
- 17) 지연경(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삶의 대처방안으로서의 재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Aiken, L. R.(1995). *Aging-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Sage Publications.
- 14) Enright, R. B.(1994). *Perspectives in Social gerontology*. Allyn & Bacon, Inc.
- 15) Ganong, L., Coleman, M.(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 Sage Publications.